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특집 1995 ·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

화제의 제품 그 매력의 비밀을 캔다 4 JADIS J1 DRIVE

오디오 브랜드 연구 MONSTER CABLE

집중시청 크라운의 파워앰프들

세계의 레이블 cpo

13

1996 제4권 제1호



특집
화제의 제품

1995 ·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
JADIS J1 DRIVE



PATHOS ACOUSTICS TWIN TOWERS

INTEGRATED AMP

₩3,900,000

- 실효출력:30W+30W(8Ω) ●입력단자:PHONO, CD, AUX, TAPE ●입력 임피던스: 100kΩ ●톤 컨트롤:없음 ●리우드니스 컨트롤:없음 ●뮤팅:없음 ●밸런스 조정:없음 ●SN비:90dB ●사용진공관:12AX7(ECC83) x 2개 ●크기:W49 x H25 x D47cm ●무게:45kg ●수입원:리마케팅(929-6053)

넓고 풍부한 공간감 재현 섬세하고 나긋한 질감 생생해

1994년 이탈리아의 비첸자에서 지아니 보리나토 등 이곳 출신 30대 중반의 세 사람이 모여서 설립한 패토스 어쿠스틱스.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동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의 이미지가 선명히 떠오를 것이다. 트윈 타워스 인티그레이티드 앰프 역시 과거의 전형적 콘셉트를 과감하게 벗어 던진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의 패셔너블한 가구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1994년도말에 이탈리아의 오디오 잡지 Fedelta Del Suono에서 최고 영예인 오스카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앰프의 특성은 우선 이상적인 앰프의 증폭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작진의 주장에 의하면 진공관 앰프는 공간감이나 음악성이 우수하나 출력 트랜스로 인한 증폭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솔리드스테이트 앰프의 경우는 힘과 펀치 그리고 왜울면에서 메리트가 있으나 CD의 출현과 동시에 자연스러움의 결여와 차가움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진공관과 T_r의 혼합체인 하이브리드형 앰프가 나왔으나 각 소자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패토스의 제작진들은 INPOL이라는 새로운 앰프 회로를 고안해냈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험과 연구 끝에 전압을 증폭시키는 데는 진공관이 더 낫다는 결론을 얻고서 입력단에 진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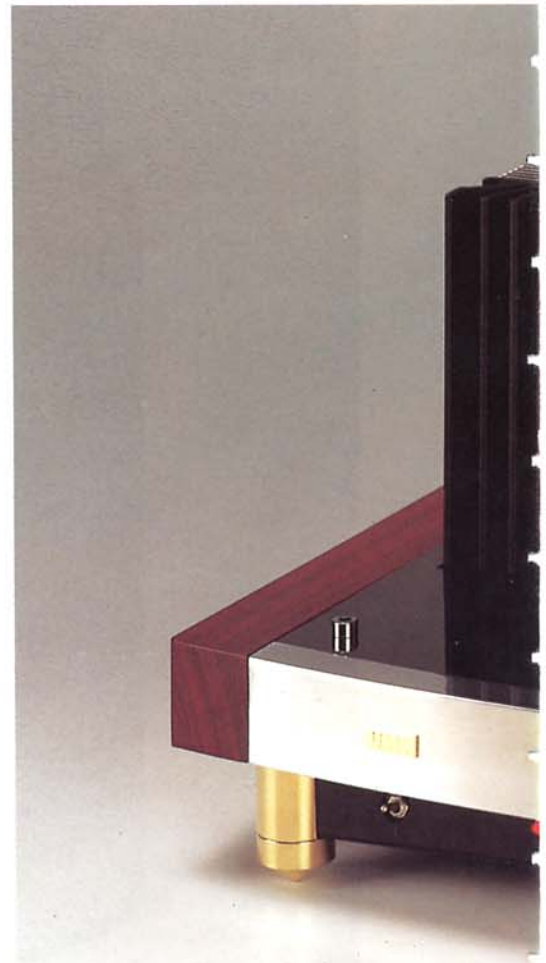
(12AX7)을 사용하고,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데는 T_r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 설계한 것이 바로 INPOL 회로다. 일종의 하이브리드형이지만 중간에 오디오 신호의 어떠한 조작도 허용치 않고 앰프의 이상적인 기능, 즉 신호를 왜곡 없이 충실하게 증폭시키는 기능을 갖겠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와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트윈 타워스의 출력은 8Ω시 채널당 30W. 순 A클래스이며 저왜율과 리니어리티의 확보 및 피드백의 완전 차단을 자랑하고 있다. 모든 신호 배선은 구리로 실당한 순은재이며 볼륨 컨트롤은 2dB씩 23단계까지 실택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오디오 시그널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2개의 저항만을 채용했다고 한다.

그외 입출력 단자는 24K 골드도 도금되고 샤프는 두꺼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서 외부기기와의 차폐가 완전 보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INPOL이라는 새로운 회로로 제작된 이 앰프의 재생음이 무척 궁극했다. 스펠도어 SP-1 스피커에 연결하여 시청해본 첫소감은 진공관과 솔리드스테이트 앰프의 장점을 절묘하게 배합시켜 놓은 듯한 사운드라는 것이다. 처음엔 다소 둔탁한 소리여서 실망했는데 한두 시간 지나에 이징되면서부터는 여느 앰프에서 느끼기 힘들 정도로 넓고 풍부한 공간감이 재현되면서 섬세하고 투명한 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울리면 울릴수록 자

연스럽고 감미로운 질감과 음악적 нюан스를 잘 살려내는 특성을 지닌 것 같았다. 잘 연마된 중고역과 충실하게 재현되는 중저역이 인상적이었고 컬러레이션이 없는 유기질적인 음색이 매력적이었다. 유종이 지휘한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세레나데'는 마치 라이브홀에서 연주를 감상하는 듯했다.



특히 현악합주의 섬세하고 나긋한 질감과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울림이 어필했다. 블랙웰의 노래는 축축하고 정감어린 소노리타가 더욱 호소력있게 들리고 존 루이스의 피아노는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다.

퓨전재즈나 팝 등 기계음이 섞이지 않은 음악이라면, 혹은 지나치게 저능률이 아닌 스피커라면 음악을 보다 리얼하고 자연스럽게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앰프인 것 같다.(고대진)

전체적 음의 윤곽 분명히 살아나 강조된 중고역이 투명감 더해줘

한마디로 사람을 맥빠지게 한다.

소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앰프와 소리에 관련된 기성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우선 채널당 출력이 30W인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나 진공관도 아닌 솔리드스테이트 소자로 된 앰프의 소리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중고역 쪽이 살짝 강조된 듯하나 결코 지나치지는 않다. 이러한 강조가 명징성과 투명감을 대단히 높여준다. 강조가 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소프라노 블랙웰의 소리에서 확인된다. S음의 과장이 없고 노래 전체에 생기가 돈다. 출력이 채널당 30W라고는

하나 이러한 수치야 어쨌든 귀에 느껴지는 힘이 대단히 좋다. 출력 200W가 넘는 파워앰프로 울려도 그만한 소리가 거의 안 나올 것이다. 아마도 파워 쪽보다는 프리 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성격과 관련되는 듯이 여겨진다. 저역이 약간만 더 두터우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으나 중고역의 소리가 너무 좋아 이 정도로도 나무랄 데가 없다.

전체적으로 음의 윤곽이 분명히 살아난다. 피아노는 거의 CAT의 SL-1 프리앰프를 통해 듣는 그러한 소리가깝다. 바이올린은 격렬하지만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최근 들어본 최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임을 확신한다.(박상섭)

